

교양과목 공청회 설문조사 정리본

1. 설문대상 및 응답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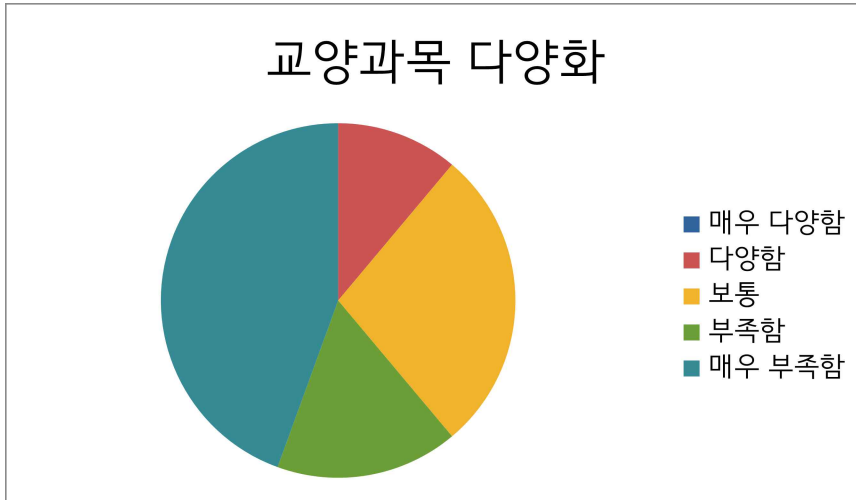
(1) 설문대상

- 서울장신대학교 모든 학우

(2) 응답자

- 총 18명 (신학과 9명, 사회복지 7명, 교회음악 2명) 응답

2. 교양과목이 다양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매우 다양함[0표(0%)], 다양함[2표(11%)], 보통[5표(28%)], 부족함[3표(17%)], 매우 부족함[8표(44%)]

- 기타 의견('부족함' 또는 '매우 부족함'을 선택한 이유)

- 교양과목의 스펙트럼이 부족하다.
- 대다수의 교양과목이 신학과 위주이며, 다양한 교양과목을 수강하고 싶으나 선택의 폭이 매우 좁다. (이와 같은 의견으로 6명이 답변함)
- 교양과목 수가 너무 적으며, 다양한 과목을 들을 수 없다.
- 기독교 세계관, 성경 읽기 그리고 세계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새로운 지식과 기술 등을 교양수업만으로 인식할 수 없다.

3. 현 교양과목 중 '진로탐색'과 '취창업의 길을 묻다'는 선택적 필수 과목입니다. 이 과목을 수강한 후 도움이 되었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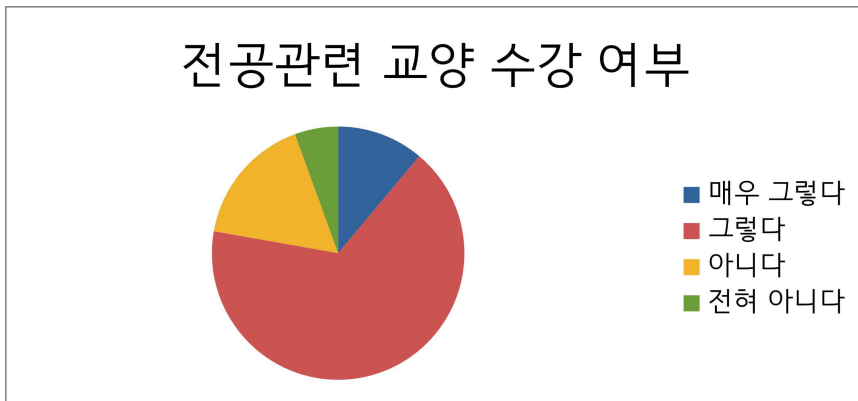


매우 그렇다[1표(6%)], 그렇다[11표(61%)], 아니다[4표(22%)], 전혀 아니다[2표(11%)]

○ 기타 의견('아니다' 또는 '전혀 아니다'를 선택한 이유)

- 진로나 취업 면에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와 같은 의견으로 3명이 답변함)
- 전문성이 없다.
- 이전의 진로탐색 수업은 P/NP로서의 메리트만 있었지, 유용함은 느끼지 못했다. 좀 더 현실적이고 적용 가능한 교재와 수업 내용이 되기를 바란다.

4. 현재 자신의 전공과 관련 있는 대학별 교양과목을 수강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그렇다[2표(11%)], 그렇다[12표(67%)], 아니다[3표(17%)], 전혀 아니다[1표(5%)]

○ 기타 의견('아니다' 또는 '전혀 아니다'를 선택한 이유)

- 사회복지학과 학우들이 들을 만한 교양이 많이 없다. 대부분 신학과와 관련된 수업일 뿐이다.
- 사회복지학과에 도움이 될 만한 수업은 상담 수업, 전산 실무만 있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수업이 적다.

5-1 ~ 8-3. 현재 듣고 있는 교양과목을 적어주시고, 만족도를 선택해주세요.

순번	교과목	상	중	하
1	기독교 문화이해	5		
2	기독교 문화창조	1		
3	부모되기 교육		1	
4	선교영어		1	
5	생각의 발견			1
6	실버 레크리에이션 지도	1		
7	여성과 사회	3	1	
8	영상 세계와 가상세계 메타버스			1
9	영어	1	1	
10	영화와 심리치료	1		
11	인간과 사상	1	1	
12	인성 지도와 코치		1	
13	자연 건강과 푸드테라피	1		
14	청년기 갈등과 자기이해	1	1	
15	취·창업의 길을묻다	2	1	
16	포스트휴먼과 종교의 미래			1
17	행복한 인격이란 무엇인가	3	1	

9. 각 학과의 특성을 반영한 교양 교과목을 개설한다면, 우리 대학에는 어떠한 주제의 교과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서술형)

- 디자인, 영어회화, 국제경영, 비니지스 영어 등의 과목이 필요함
- 인문학 강의를 필요함
- 가정, 응급처치, 호신술, 금융, 건강 등의 과목이 필요함
- 재정, 재무 관련 과목 개설이 필요함. 세 과 모두 재정에 대한 부분이 부족하기에, 개인적으로 공부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음
- 언어, 교회음악, 악기연주 또는 보컬 관련 과목이 필요함
- 사회과학 및 교회음악에 관련된 교양과목이 필요함
- 프로포절 작성, 드론 활용, 포토샵 관련 과목이 필요함

10. 마지막으로 교양 교육과정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적어주세요. (서술형)

- 신학과 관련된 교양과목이 너무 많아, 다른 사회복지학과나 교회음악과 학우들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신학 교양 비중을 줄이고, 다양한 주제의 교양과목이 많아지면 다른 학우들에게 매우 긍정적인 효과가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 더 넓은 스펙트럼의 교양과목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 실질적으로 반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도움이 될 만한 수업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교양과목 공청회 학교 측 답변 정리본

1. 사회복지학과 및 교회음악과 학우들이 들을 만한 교양과목이 적다는 의견에 대한 답변
※ 신학교에 맞춰 인문학적인 공통 교양이 깔려야 하는 부분들 있기에 이러한 부분은 학우들이 감안해줬으면 좋겠다.

- 사회복지학과와의 경우, 이전에도 사회복지학과 교수님들께 부탁하여 신규 교양과목을 신설하여 커리큘럼을 확장한 적이 있음. 이번에도 사회복지학과 교수님들께 부탁해서, 사회복지학과 학우들이 들을만한 교양과목을 신설할 수 있도록 제안해보겠음.
- 현 교회음악과 학생 수가 줄어드는 상황에 따라, 교회음악과 학우들을 위한 교양과목을 개설해주기 힘든 상황임. 하지만 내년에 신설되는 실용음악과 교수님들께서 예술에 대한 이해 또는 비평가 같은 과목을 담당할 예정이므로, 관련 분야의 교양과목으로 넓혀보도록 노력하겠음.

2. 영상 편집, 포토샵, 드론 등 전문적인 프로그램 과목 개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한 답변

- 교과과정으로 만들기에 전문적인 강사 혹은 교수진의 한계가 있기에 현실적으로 힘들 수도 있음. 대신 이러한 과목을 비교과과정(10 주차 내지는 그 이하)으로 신설하여 진행할 수 있음. 예시로, CTL에서 비교과과정의 해당 과목을 개설한 적이 있었음. 이처럼 비교과과정으로 진행할 수도 있음.
- 신설되는 목회실천학부의 커리큘럼 중 미디어 및 음향 과목이 있으며, 관련 과목이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 중임. 따라서, 전공과목으로만 국한할 것이 아닌, 교양과목으로도 수강할 수 있도록 제안해보겠음.

3. 선택적 필수 교양과목 '진로탐색' 및 '취창업의 길을 묻다'의 수강 여부에 대한 답변

- 코로나 19와 예산안 감소 문제로 인해 단조로운 수업의 형태가 유지됐었음. 이러한 부분을 보완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